

〈회고와 전망〉 특집호

# 일본 의학사의 연구동향과 전망: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확대

김영수\*

1. 들어가는 말
2. 의학사 연구의 시기적 변천
  - (1) 1990년대까지의 흐름
  - (2) 다학제적 접근과 용어에 관한 논의
3. 1990년대 이후 일본 의학사의 흐름과 주요 주제
  - (1)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 (2) 근대 의학사 연구의 주요 주제
  - (3) 일본 의학사 연구의 흐름과 전망
4. 나가며

## 1. 들어가는 말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시작한 코로나19(COVID-19)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도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sup>1)</sup> 이번 코로나19의 유행은 기존의 감염병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국지적인 유행이 아닌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는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기초연구조교수, 한일 근대 의학사 전공  
이메일: yonsu7766@yuhs.ac

1)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확진자는 8월 초순 기준으로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약 70만 명에 이른다.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2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https://covid19.who.int/>

점,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만큼이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아 사람들이 기존 생활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 유행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향후 일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구축은 요원한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와 미디어는 인류사회가 코로나 유행 이전과 이후의 사회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인류사적 분기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한다.

이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역사상 유사한 사례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인문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의학지식과 생활 방역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감염병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맹위를 떨친 대표적인 사례인 중세 페스트의 유행을 다룬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 다니엘 디포의 『전염병 연대기』 등의 고전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아마존에서는 위의 고전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지금까지는 일반인 독자에게는 생소하기만 했던 100년 전 일본의 감염병 기록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것은 1918-20년의 스페인 독감 유행에 대해 일본 내무성 위생국이 작성한 것으로, 일본 및 대만, 조선 등 일본의 식민지의 스페인 독감의 발생과 이때 실시한 방역행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관에서 작성한 행정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유행으로 말미암아 책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례적으로 중판(重版)을 결정했을 정도이다.

이는 전염병 유행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응이 현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최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역사적 경험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사회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의학사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의학, 의료, 위생, 질병, 전염병 등은 특정 학문 분야를 넘어 주목받는 주제가 되었고, 의학,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등이 접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학 및 의료를 주제로 다루는 다양한 연구가 꽤 오래전부터

발표되어 왔다.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연구자 교류를 통해 간헐적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일본 의학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자가 적은 탓에 일본의 연구 동향은 정리되지 못했다. 2010년 『의사학』 19-1에서 동아시아 의학사 연구 동향 중 일부로 다루어진 적은 있으나, 이때는 대한의사학회와 한국역사학회의 학회지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그 경향을 살펴보는 데에 그쳤다(신규환, 2010).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진행중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일본과의 학문적·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감염병이라는 인류 공통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학사의 연구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일본 의학사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의학사 연구는 전통이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학문 구분만으로는 설명이 쉽지 않다. 이는 융합적인 성격이 강하여 학문분야를 일컫는 용어가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 학계에서 의학, 의료, 위생, 질병 등을 다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학문 영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문에서 이와 관련한 일본 내의 논의를 의학사 연구의 시대적 흐름과 연결지어 소개하면서 의학사가 지칭하는 연구범위, 학문범위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 의학사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전근대, 특히 에도시대를 다루는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경향성을 파악하되, 의학, 의료의 문제가 국가 형성과 운영의 주된 요소로 부상하면서 중요성이 배가되었던 근대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의학, 의료 그 자체가 목적이자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데이터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확장성을 가진다. 관련 연구 중에서도 의학이 비단 의학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역사학, 사회학 등과 조우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학과

의료 영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표면화되고, 확장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 대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학잡지(史學雜誌)』, 『일본의 사학잡지(日本醫史學雜誌)』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특히 『사학잡지』는 1889년 창간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학 학술잡지로, 일본사뿐만 아니라 동양사 및 서양사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매달 발행되는 이 잡지의 편찬은 도쿄대학교 계열의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으나, 매년 5월호는 「회고와 전망」으로 구성하여 전년도의 커다란 사건, 사고 및 『사학잡지』에 수록된 논문을 포함한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등 관련 학문분야에서 발행된 논문과 단행본을 검토하여 한 해의 경향을 다룬다. 1949년 58편 1호에서 「1948년의 역사학계」를 돌아보는 회고와 전망을 낸 이후 매년 일본 역사학계 전반을 각 시대별로, 주제별로 정리하고 있어, 매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본의사학잡지』에 수록된 논문의 일부는 『사학잡지』의 회고와 전망에 언급되기도 하나 별도로 최근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sup>2)</sup> 아울러 한국에서 발표된 일본 의학사 논문도 포함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식민지 시기의 위생, 의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 식민지로 파견된 일본인 관료나 제도형성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논문은 언급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일본 의학사에 근거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의학사 연구의 시기적 변천

### (1) 1990년대까지의 흐름

일본의 의학사 연구의 시작은 후지카와 유(富士川游, 1865-1940)가 『일본 의학사(日本醫學史)』(1904)를 집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등

---

2) 『일본의사학잡지』의 경우 원저, 연구노트,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원저로 한정하였다.

지에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의학의 과학화가 이루어지면서 급속하게 발전하던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에 걸쳐 의학사가 확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후지카와도 일본에서 의학의 역사를 정리하며 학문 분야를 개척했다.

20세기 전반에 연구를 이끈 인물들은 후지카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던 의사들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이때는 헨리 지거리스트(Henry Sigerist, 1891-1957)나, 에르빈 아커크네이트(Erwin Acherknecht, 1906-1988) 등과 마찬가지로 의사를 중심으로 의학의 역사가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지카와와 관련된 의사들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의학사 연구를 주도하면서 이전의 의학자들의 업적을 정리하거나, 질병의 역사 등을 정리하였다. 후지카와나 구레 슈조(吳秀三, 1865-1932) 등 메이지기에 활약한 제1세대에 의한 의학사 연구는 전후에도 이어져, 혈청학자이자 동경대 교수인 오가타 도미오(緒方富雄, 1901-1989), 해부학자이자 동경대에서 퇴직한 후 준텐도 대학의 의사학 교수가 된 오가와 데이조(小川鼎三, 1901-1984), 위생학자이자 동경대 교수 야마모토 슌이치(山本俊一, 1922-2008), 바이러스 학자이며 치바대학 교수인 가와키타 요시오(川喜田愛郎, 1909-1996) 등이 초기 일본 의학사 연구를 상징한다(鈴木晃仁, 2014: 28). 가와키타는 『근대 의학의 사적기반(近代醫學の史的基盤)』(1977)을 발간하여 1970년대까지의 서구의 의학사 통사를 짚어냈다. 이외에도 사카이 시즈(酒井シヅ, 1935-) 등이 에도시대와 관련된 다양한 의학지식과 질병의 문제를 고찰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학사 연구가 계속되었다. 다만, 1960-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의학사 연구와는 다른 목적과 체제를 가진 연구가 등장했다. 이때 진행된 연구는 동시대의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면서 의학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특징을 가진다. 의학사 연구가 시민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빈곤에 따른 영아사망률의 문제 등을 사회구조와 연관시킨 연구가 진행되었고, 사회운동, 좌익 등 당대의 사회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인 연구를 중심으로 의료평론가 등이 등장하여 당대의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주류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좌익의 쇠퇴 등으로 의료체제, 의국제도에 대한 비판과 무의촌진료, 노동자 진료소, 농촌의학 등을 주로 하는 연구가 힘을 잃게 되면서 새로운 조류가 시작되었다(鈴木晃仁, 2014: 28).

1980-90년대에는 의학의 역사를 논의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때까지의 의학사 연구가 의사에 의해 의학부 내부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때 등장한 의학사는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와 접점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을 띠고 의학사를 다루기 시작했다.<sup>3)</sup> 이러한 변화는 영미권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사 연구의 변화<sup>4)</sup>에 따라 일본에도 유사 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의학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까지의 비약적인 의학의 발전을 서술하고, 위대한 의사를 발굴해서 서술하는 데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긍정하는 시선이 깔려있고, 상대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분석하거나 통계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井本眞理, 2011).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영향, 신체에 대한 주목, 젠더론 등의 영향과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의료기술의 진보가 더 이상 시대의 상징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의학사는 변용되었고, 외연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의학사의 주제는 기존의 의학사 서술에서 중시되던 의학에의 공헌을 다룬 글쓰기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의학과 사회와의 관계와 그 속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었다.

특히 역사학과의 접점을 통해 의학사의 주제 및 연구방법론은 크게 확장되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측면은 국민국가론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1980-

3) 기존에 주로 연구를 주도하던 의사 출신 의학사 연구자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1960-61년도의 M.D. 의학사 연구자는 52%였으나, 2000-01년에는 13%로 감소하였다(月澤美代子, 2018: 403).

4) 의학사는 19세기 후반의 급격한 의학의 과학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학사, 20세기 초반의 급격한 과학화를 반성하기 위한 교양으로서의 의학사, 20세기 후반의 역사학자들의 유입에 따른 의학의 역사학적인 탐구와 사회운동에 대한 반응 등을 포함하는 의학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를 포함하는 의학사 등으로 재해석되어 왔다(Frank Huisman and John Harley Warner, 2004: 5-7).

90년대 역사학계에서는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국민에 초점을 두는 국민국가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는 전후 일본의 역사연구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문제제기였다.<sup>5)</sup> 국민국가론의 대두에 따라 1990년부터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다수 개최되었고(加藤千香子, 2015: 130), 국가통합을 위한 각종 장치인 국민 신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 위생(제도), 질병통제 등을 키워드로 이를 분석하려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成田龍一, 1995).

의학과 역사학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의 흐름은 의학, 의료, 질병 통제 등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의 의미에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의학, 의료, 질병, 위생 등을 프리즘 삼아 사회를 바라보고, 역으로 이를 통해 의학 역사의 발전 및 변화를 다루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의학사 연구는 각국사뿐만 아니라, 민속학, 문화인류학, 문학, 사회학 등과의 점점 속에서 연구가 확대되어 갔다.

## (2) 다학제적 접근과 용어에 관한 논의

의학사의 변용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해당 학문을 무엇이라고 명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의학, 의료, 위생, 질병 등의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는 학문 분야를 어떻게 부를 것인지에 대한 공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연구 대상을 크게 나누자면 의학의 역사, 실천으로써의 의료의 역사, 환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병과 건강의 역사, 인체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서의 질병의 역사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각각의 연

5) 일본의 전후 역사학은 황국사관이 붕괴한 후에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국사, 즉 일본사상(像)을 창출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자각한 역사학자들의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그 후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일본사연구회 등의 학술단체가 거점이 되어 아카데미즘과 운동을 두 개의 축으로 하여 전후 일본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의 역사의식형성에 큰 힘을 발휘했다. 전후 역사학에서는 과학적 역사학이 주창되었고, 마르크스주의적인 유물사관이 주효했다. 역사발전의 기본단위는 일국사였고, 1970년대 이후 사회사나 민중사의 등장을 계기로 변화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이론체계는 198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기반이 흔들리게 된 것은 동구 혁명 및 소련의 붕괴 등 세계사적 동요와 맥을 같이 했다(加藤千香子, 2015, 129).

구는 의학, 의료, 환자, 질병 등의 주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다룰 것인지에 따라 도출되는 결론이 달라지고, 각각의 소재 간의 관련성을 어떠한 입장에서 파악할 것인지도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이는 의학, 의료, 과학 등은 모두 실천의 현장을 갖고 있는 영역으로, 실천의 현장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기인한다(月澤美代子, 2018: 403).

한국에서도 의사학이나, 의학사나, 의료사나 라는 명칭에 대한 의견과 해석이 분분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학의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sup>6)</sup> 이 연구영역이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역사학, 의학, 사회학 등 각각 다른 방법론을 추구하는 학문분야에서 의학, 의료를 둘러싼 문제를 다루면서, 이를 연구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에 기인한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서 최근 이 학문분야의 명칭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연구영역을 확보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감염병 통제를 통한 근대 의료의 제도화를 다룬 이이지마 와타루(飯島渉)는 새로운 시각에서 의학, 의료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연구를 ‘의료사회사’라고 명명했다. 이 용어는 익숙하지 않아 의학사나 의사학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고, 의학사와의 경계 및 차이를 서술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의료사회사의 가장 큰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의학사가 의학, 의료 및 공중위생 그 자체를 논한다고 한다면, 의료사회사는 의학, 의료 및 공중위생을 둘러싼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이다(飯島渉, 2015: 50).

6) 『의사학』의 잠지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의사학과 의학사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의 경향으로 보면, 해당 학문분야를 일컫는 용어로 의학사라는 용어를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의사나 의술의 발전을 다루는 연구가 아닌 의학의 사회적 측면을 반영한 연구 동향을 일컬어 의료역사, 의료사회사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정신의학에 대한 의료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즈키 아키히토(鈴木晃仁)는 의료사, 의사학, 의학사 등의 후보군을 두고 설명하면서 각각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의료사(醫療史)는 의사와 환자의 쌍방을 포함하는 의미의 새로운 ‘의(醫)의 역사’라는 측면이 주된 흐름이기 때문에 임상에 특정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고, 의사학(醫史學)은 순수한 의미로 본다면 history of medicine의 가장 적절한 번역어로, 일본 의사학회도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의사학회를 벗어나면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의사학과 의학사의 검색어의 비중을 살펴보면, 의학사가 단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한다. 의학사라고 하면 협의의 학문적인 성과로서의 의학의 역사를 지칭한다고 오해받기 쉽지만, 그것은 연구자의 의식과 성과에 의해 정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의견을 표명하며, 의학사라는 용어를 채택했다(鈴木晃仁, 2014: 27).

한편, 이모토 마리(井本眞理)는 「의료사의 가능성-의학사, 위생사로부터의 비약」이라는 논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의료사를 의학사와 위생사를 포함하는 더 큰 학문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모토는 근대 의사직의 형성과 그들의 활동을 다루는 연구를 의학사로 보고, 여기에 사회사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의료사로 확대되어 간다고 보고 있다. 의학사와는 별개의 줄기로 국가에 의한 신체 관리와 위생 정책의 시행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 연구를 위생사라고 명명하여, 이 두 개의 연구영역이 의료사 분야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井本眞理, 2011).

준텐도대학의 쓰키사와 미요코(月澤美代子)는 의학사 연구의 역사에는 다양한 입장이 교차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학의 하부 학문영역(sub-discipline)인 의학사의 방법론(捉える見方)과 역사학의 일부로서의 의학사의 방법론은 공존하면서도 때로는 미묘한 불협화음을 내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사학회 내에서 전통 의학의 문헌연구라는 협의의 ‘의사학’부터 ‘의료사/의학사’ 연구자들까지 다양한 입장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다고 현재 학회의 동향을 밝혔다. 쓰키사와는 의료사/의학사/과학사는 자립적인 학

문영역(discipline)이며, 복수의 방법·입장·시점이 공존 가능한 ‘다원적 공존(pluralism)’의 세계라고 주장하였다(月澤美代子, 2018: 406).

이처럼 일본에서는 구미권의 의학사 연구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며, 다변화하고 확장된 연구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의사학과 의학사뿐만 아니라 의료사회사, 의료사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다. 용어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해당 연구가 의학이나 역사학이라는 전통적인 학문분야와는 별개의 학문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의학의 역사를 다루던 협의의 의학사가 아닌 확장된 학문영역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여전히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학제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의학사 연구와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의료사 및 의료사회사 등의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용어는 새로운 ‘의(醫)의 역사’를 강조하고, 의학, 위생, 질병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로 인해 촉발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상호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용어는 최근 의학사 연구의 새로운 경향성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스즈키가 언급한 것과 같이 해당 학문영역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의학사가 이미 정착되어 있어 용어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협의의 의학사 연구와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의 해석 문제는 남아있어 당분간은 용어를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3. 1990년대 이후 일본 의학사의 흐름과 주요 주제

#### (1)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최근 의학사의 연구 동향 중 먼저 전근대의 흐름을 살펴보자.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근대 중에서도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에도시대의 경우, 「에도학」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당대 사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사학잡지』의 「회고와 전망」에서 언급할 때에도, 집필자가 에도시대의 사회, 문화 분야 안에 거의 매년 의학, 의료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연구논문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꾸준히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의자(醫者) 및 유학(儒學), 난학(蘭學) 연구, 도시연구, 감염병 정보의 전파 등이다.

주된 흐름 중 하나는 의사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도시대에 번(藩)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번의(藩醫), 재촌의(在村醫), 정의(町醫) 등 존재 형태에 따라 그들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 나아갔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지역에 분포하는 의사들의 계급 관계 및 의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川鍋定男, 1999; 竹下喜久男, 1999; 張基善, 2007b), 재촌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青木歲幸, 1998; 海原亮, 2001; 2006),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상을 보여주는 연구(岩下哲典, 2000; 2002), 각 번별 의사의 존재형태(上野周子, 2007; 張基善, 2007a) 등을 다루는 연구가 그것이다. 또한 의사 개인의 유학(遊學)과 활동을 다루는 연구(長田直子, 2002; 梶谷光弘, 2002; 平野惠, 2002; 深瀬泰旦, 2003a; 2003b; 2014)나 에도 말기 제도의 변화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한 가문의 역할과 의의를 탐구하는 논문(田崎哲郎, 2001), 1874년 의제 확립 이전의 막말(幕末) 의사 신분의 상황과 변용을 고찰한 논문(海原亮, 2010) 등도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 환경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해서는 재촌(在村) 의료를 분석하여 의사의 증가와 의술, 수술의 병존 등을 그려낸 연구(細野健太郎, 2007), 피치료자가 어떻게 의사를 선택했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각종 의료수단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던 에도의 의료환경을 보여주는 연구(竹下喜久男, 1998; 海原亮, 2000), 양생소가 임상면에서는 의학의 거점이었다는 연구(岩淵佑里子, 2000), 난방의사의 양적 확대에 따른 사회기반으로서의 의료문제(岸野俊彦, 2001), 난학의 확대에 따라 의료환경이 변화되는 모습(海原亮, 2009), 난방의학이 지역에 침투하는 모습(細野健太郎, 2000; 2004; 酒井耕造, 2004; 小川亞彌子, 2004), 에도 의학관의 임상교육목적이 변화되는 양상(町泉壽郎, 2013), 의학교육과 의료정책(海原亮, 2007)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에도시대에는 많은 수의 의사가 존재했고, 그들의 존재 형태도 다양했다. 이에 따라 의사 개인이나 그들의 지위, 의술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시기에 따른 그들의 지위변화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또한 의사 및 그 집단의 다양한 존재 형태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별로 상이했던 의료 환경을 구현해 내거나, 에도 후기에 점차 세를 키워간 난방의학이 각 지역으로 침투하면서, 의료의 형태가 달라져가는 모습을 그려내어 점차 의료 환경이 변해가는 모습을 담아내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감염병에 관한 논문은 꾸준히 발표되었다. 감염병의 유행과 그 다양한 대응 양상을 분석한 연구(松木明知, 1997; 小林茂, 2000; 前川哲朗, 2000; 鈴木則子, 2004)와 종두법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사카의 제두관(除痘館)의 역할과 우두법 보급을 위한 지역사회 의사들의 활동을 담아낸 논문(淺井允晶, 1997; 1998)이 있다. 정신병자 연구(板原和子·桑原治雄, 1998; 1999a; 1999b; 2000)를 통해 에도시대의 복지의 일면을 보여주는 연구(妻鹿淳子, 2010) 및 매독의 국민병화와 근대 의료경찰제도의 흐름을 설명한 연구(宮崎千穂, 2011) 등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의학, 질병에 관한 비교적 협의의 의학사 연구도 지속되었다. 에도의 눈병 치료(海原亮, 2013), 의사별 의술에 관한 연구(松木明知, 1996; 高橋克伸, 2013), 중국과 일본의 의학의 차이를 짚어낸 연구(館野正美, 2010) 등을 들 수 있다.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근대의 의학사 연구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살펴보았을 때 각 10년이 갖는 연구사상의 특징보다는 몇 가지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근대 의학사 연구가 문서의 발굴과 해독에 장기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료 분석을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한된 연구자 사이에서 의학, 의료, 질병을 다루는 경향이 보인다. 다만, 점차 전근대 의학사 연구에서도 의사 개인의 의학 연구와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 이외에 의사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의료 환경의 변화를 그려내는 등의 사회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연구논문

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2) 근대 의학사 연구의 주요 주제

근대 의학사 연구는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근대 연구와는 달리 복잡성을 띠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태평양전쟁의 역사적 평가, 국민국가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역사와는 달리 다양한 시점에서 역사를 풀어내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여전히 ‘국민’의 창출이 중심 주제인 가운데, 국민에서 배제된 마이너리티 연구가 진행되고, 이와 동시에 균질적인 국민국가의 허구를 파헤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小森陽一ほか編, 2002). 또한 2000년대 초 제국론이 유행하면서 국민국가론과 결합하여 제국 일본의 성립과 국민의식, 타자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 시기별로 각기 다른 주제가 등장하면서 논점을 달리하는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이후까지 의학사를 관통하는 큰 주제는 대부분 국민국가론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다.

근대 의학사의 주요 테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대의학교육을 받은 의사에 관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관련 연구는 후지카와 유클 필두로 의학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대 서양의학교육을 받은 의사들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연구가 1960-70년대에 진행되었다. 일본의 근대 의학은 에도시대에 축적된 난방(蘭方)을 기초로 하여 독일 등에서 근대 서양의학이 도입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사회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서양의학교육을 받은 의사의 배출과 그들의 자격규정문제, 사회적 지위 및 실제 활동, 그들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의료제도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川上武, 1965; 菅谷章, 1976; 布施昌一, 1979). 이러한 흐름을 이어서 근대 서양의학교육을 받은 의사 및 의학교에 관한 연구(唐澤信安, 1995)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지금의 관심은 의사 자체에 관한 관심보다는 서양의학 도입 이후 그들을 바탕으로 메이지 시기의 위생행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의사 및 의료인 개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의사, 근대 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는 진행되고 있다. 의사 및 의료인에 관한 연구 중에 흥미로운 부분은 전근대와 근대의학에 대한 평가와 실제 활동한 의사의 존재 형태, 그리고 근대 의학의 출발점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 의학 및 의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의학에 대비시켜 근대 의학의 학문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메이지 정부 주도의 근대 서양 의학으로의 전환, 근대 서양의학학을 배운 의사들의 전국적 배치와 국가 의료 행정의 담당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연구는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당시에 활동했던 의사의 형태를 보면, 서양의학과 한방의학 양쪽의 지식을 받아들인 절충의(折衷醫)의 형태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그려왔던 메이지 초기의 의사의 존재 형태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馬場義弘, 1993). 그리고 제도의 변화에 따라 근대적 여의(女醫)가 탄생하고, 그들의 수와 활동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에 주목하는 연구(三崎裕子, 2015; 福嶋正和·藤田慧子, 2016)도 발표되었다. 또한 일본의 근대 의학은 메이지 정부가 독일식 의학과 의료체제를 받아들여 추진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 시작을 1870년대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에도시대에 데지마를 통하여 서양의 의학지식을 흡수하고, 다수의 난방의들이 활약했던 규슈의 의학을 다룬 것으로, 19세기 중반 종두의(種痘醫)의 확대와 근대 의학의 수용과의 관계 속에서 근대의학의 기원을 두고 새롭게 문제 제기를 시도하였다(青木歳幸·大島明秀·W. ミヒエル, 2018).

아울러 의사의 불균형 배치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의사의 도시집중 문제는 근대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고, 지금까지는 그 이유를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찾았다. 즉, 기존의 연구는 의사가 도시에 집중하여 개원하고, 농촌을 기피하여 무의촌이 생기는 원인을 농촌에서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지역편차가 생기는 원인을 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병원을 선호하는 데에 있고, 사람들이 '도시' 수준의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 있다고 지적하여, 무의촌의 문제가 단순히 의사의 영리추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밝혀냈다(猪飼周平, 2005; 2010; 高岡裕之, 1993; 井本眞理, 2011).

이 외에 근대사회를 구축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료, 위생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즉 근대의 의료위생행정의 형성을 다루는 논문이 다수 등장했다. 역사학계에서 위생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꽤 주목을 받으면서 역사학연구회가 펴낸 『강좌 세계사 4』(1995)에 공중위생에 관한 논문(成田龍一, 1995)이 수록되고, 1997년 역사학연구회대회의 근현대사부회에서는 '근대사회시스템으로서의 공중위생'이 중심 주제로 상정되어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成田龍一, 2001). 사회 공공의 이익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규범을 요구하고, 그들을 일정한 틀에 맞춰 넣으려는 정치적인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국가의 국민의 신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관리를 위해 도입한 수단, 제도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大日方純夫, 1998). 여기에는 일본이 국민국가를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근대적 규율의 대상으로 등장한 신체, 감각, 가족 등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였음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회적 신체-문명화-국민화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다(成田龍一, 1995; 阿部安成, 1996b: 423).

관련 연구는 공중위생의 정비와 관련 규칙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질병의 유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내기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위생행정에 관한 연구는 특히 감염병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의 결과에서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콜레라, 페스트, 두창 등의 유행에 따른 방역대책의 결과, 전염병예방법이 전국적으로 법제화되었다는 내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小島和貴, 1995; 笠原英彦, 1997; 2000; 長野浩典, 1997; 山本志保, 2001; 竹原萬雄, 2005; 廣川和花, 2010; 遠城明雄, 2015). 이들 연구가 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사업의 결과로 의료위생행정의 모습을 그려낸다고 한다면, 다음의 연구는

메이지기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위생행정 개념과 내용의 전환을 살펴보고 있다. 나가요 센사이(長與專齋)에서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로 이어지는 근대 일본의 위생행정이 실시되어 가는 가운데, 전염병에 대한 대책, 중앙과 지방의 위생행정 시행과 제도 수정, 환경 위생에 대한 관심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생행정의 주체로 경찰이 부상하고, 자치위생이 좌절되는 등의 일본의 위생행정 변천의 양상이 드러났다(大日方純夫, 1992; 笠原英彦, 1999; 竹原萬雄, 2009; 笠原英彦·小島和貴, 2011). 아울러 위생행정 정비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간호부, 산과 규칙제정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高橋みや子, 2001; 平尾眞智子, 2001).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의료위생행정의 형성뿐만 아니라 중앙이나 지방의 위생행정기관의 결성에 대해서 다루는 연구와 중앙과 지방에서의 의료행정의 상황을 다루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콜레라 유행 당시의 현(縣)지방위생회의 활동이 일본의 지방위생회의 원형이 되었다는 연구(市川智生, 2008), 내무성 위생국, 중앙위생회 및 대일본사립위생회 등의 결성을 논한 연구(吉川美佐, 2008), 콜레라 유행에 따라 각지에 설립된 위생조합에 관한 연구(中澤惠子, 2009) 등을 들 수 있다.

감염병과 방역대책, 위생행정의 형성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국 단위의 감염병 발생과 그 대책이라는 행정제도의 정비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최근 연구는 한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여 지역적인 특징이나 정부 정책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자체에 주목하는 연구는 많지 않고, 병과 의료기술, 지방 유지의 역할, 병의 언설 등을 연결하여 다루는 논문이 몇 편 존재한다(松永巖, 2002; 内田正夫, 2002; 島藺進, 2003; 度會好一, 2003; 二谷智子, 2009).

위생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강제적 감염병 방역과 그 과정에서 관(官)과 민(民)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과 차별의 모습을 다루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콜레라 소동을 통해 위생 등 근대적인 조치에 대항하다가 결국 억



압에 의해 정부가 제시하는 질서에 익숙해져 가는 민중의 모습을 그려내는 연구(阿部安成, 1996a), 메이지 정부가 강제로 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중이 공유하는 생활과 관의 강제적인 방역 정책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여 폭력으로 비화된 사건이나, 피차별민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도가 지역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도 있다(小林丈廣, 2001). 그리고 예방을 위해 격리, 배제를 인정하는 위생 시스템의 성립이 사회적 차별대상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점을 지적한 연구(大日方純夫, 1998; 小林丈廣, 1998)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일본사회에 폭력, 차별을 동반하는 근대적 제도가 정착되면서 근대적인 위생개념이 대중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생행정이 만들어낸 억압과 순응, 그리고 ‘균등’한 ‘국민’ 사이에서 차별이 정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위생행정에 관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연구의 대부분은 메이지 초중기에 집중되어있고, 그 뒤를 잇는 연구는 전시체제하의 의료제도로 연결된다. 전시기의 현(縣)의 의료조합운동(田中省三, 1996), 사회사업적인 의료제도시사(藤原壯介, 1996), 지역의 보건부주재제도의 전전과 전후의 연속과 단절성 문제(木村哲也, 1999), 후생과 건민정책(藤野豊, 2000)을 정리하거나, 전후 독립병원의 확충(森山治, 2006) 및 전시기의 의료제도가 전후의 지역의료로 연결되는 과정을 그린 연구(中村一成, 2006), GHQ의 간호제도개혁이 전전의 일본형 간호체제에 강하게 규정되어있다는 점을 규명한 연구(田中幸子, 2001), 전후 간호부자격변천에 관한 연구(山下麻衣, 2001a; 2001b), 근대 일본의 정신의료시스템이 전후 민간 정신병원의 융성으로 이어진 경향을 담아낸 연구(後藤基行, 2012)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전시기에 형성된 의료제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것이 전후의 제도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이 외에 감염병의 연구도 한 축을 이룬다. 급성 감염병 연구는 메이지 초기의 위생행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서술되고 있고, 만성 감염병의 경우는 전시체제하의 만성 감염질환 환자들의 전시동원과 격리, 배제라는 문제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sup>7)</sup> 전시기 한센병, 정신병, 결핵 환자 등은 전시체제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고, 배제가 필요한 자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우생학과 우생사상이 작동하며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전시체제는 근대 초기와는 다른 맥락에서의 국익 추구하고 전시 동원을 위해 위생을 매개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파악하고, 관리·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동원될 수 없는 만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차별에 논리적 근거를 부여하는 우생학이 파시즘체제 하에서 광범위한 정책 체계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藤野豊, 1995a; 1995b; 1998)와, 메이지 이후 쇼와 전중기(戰中期)까지의 한센병 환자들의 차별의식과 격리, 단종정책과 환자의 저항을 그려내고, 민족위생정책(우생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모습을 그려낸 연구(藤野豊, 1996; 1998)를 들 수 있다. 또한 결핵의 사회사적 측면을 담아낸 연구(青木純一, 2004) 및 사업장 내의 환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법령의 정비를 통해 일본의 결핵예방책이 격리정책에서 백신 정책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그려낸 연구(林采成, 2019)도 발표되었다.

아울러 우생학과 국방국가건설과의 관련성을 짚어보는 연구(松村寛之, 2000)와 전후의 가족계획이 전전의 우생사상에 근거하여 사적인 가족 행복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과 평화국가 건설이라는 공적인 목적의 수단으로 위치지어지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荻野美穂, 2001)도 있다.

### (3) 일본 의학사 연구의 흐름과 전망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의학사 연구 동향은 의학, 의료, 위생, 질병을 둘러싼 제도사, 사회사적인 함의를 추구하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감염병 통제를 통한 근대적 제도의 수립과 변화, 국가가 구성원인 국민의 신체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강제한 측면이 강조되어 왔음

7)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점령기의 급성 감염병의 발생추이를 다룬 연구도 있다(田中誠二·杉田聰·森山敬子·丸井英二, 2007; 田中誠二·杉田聰·安藤敬子·丸井英二, 2009).

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시기에 형성된 의료제도가 전후 의료제도와 연속선상에 있음을 밝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다만, 왜 공중위생이 민중의 국가에 대한 합의조달의 매개로 작동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의사를 단순히 국가기관의 하나로 취급한 나머지 근대 의료나 의사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井本眞理, 2011, 145). 아울러 관련 연구가 메이지 초기와 1930년대 전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 1900년대 초부터 1930년대까지의 일본의 의료 및 위생정책의 전개 과정이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최근 통계분석을 통해 1920년대의 감염병의 양상을 알아보고, 이것과 도시의 생활환경을 연계한 연구(永島剛, 2005)와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의 감염병 발생을 대도시의 인구과밀과 기후의 문제와 관련지어 살펴보는 연구(鈴木晃仁, 2005)가 있어 향후 유사한 연구를 통해 연구의 공백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최근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 스즈키(鈴木晃仁)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의료의 역사에 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신병을 둘러싼 역사, 사회차원에서의 문제해결 방식, 국가나 정책, 의사 등 의료 및 위생 정책의 공급자의 입장에서의 서술이 아닌 수급자인 환자의 입장에서의 의료·위생 정책의 수용 방식, 환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신병 환자에 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은 의학, 사학, 철학, 문학, 음악 등이 결합된 형태로, 더욱 폭넓은 융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 성과가 의학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공백이 다수 있지만, 관련 연구자의 수와 폭이 넓어졌다는 점은 1990년대 이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분포로 보면, 점차 의학, 역사학뿐만 아니라 민속학, 문학, 사회학 분야로 확장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의학 전공자 출신의 연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의학사 연구는 영미권 내의 변용과 발전과 함께 인문사회과학의 각 분야와 영역으로 확장되어, 시점, 문제 관심, 방법론이 다양화되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의사학회의 학회지에 수록되는 연구 논문은 전통적인 의학사에 가까운 의가 및 의서 연구, 의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연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8)</sup> 새롭게 발굴되는 사료가 많은 만큼, 일본에서는 여전히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그들의 연구가 전근대 및 근대 초기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근대 의학사를 논하는 장면에 그들이 등장하는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학사의 연구주제와 방법론이 확대되면서 1990년대 이전에 비해 연구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국민국가론과 제국론의 대두로 이 테마를 의학사로 풀어내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며, 의학사가 학계의 큰 흐름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 기인한다. 그 결과, 일본에서 의학사 연구는 이전 시기에 비해 인지도도 올라가고, 연구자 수도 증가했으나, 여전히 의학사가 일본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 무엇보다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국민국가론 및 제국론과 같이 학계의 논의를 주도한 거대 담론이 2010년대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의 결과, 근대와 현대와의 연속성보다는 단절감이 심화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지속 가능한 연구 및 이성 이 아닌 감정과 신체의 문제에 주목하는 쪽으로 학계의 흐름이 변화한 것에서 감지된다. 그러한 가운데 의학사는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동력을 갖지 못하고,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몇 가지의 특징은 향후 의학사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제간 융합이라는 테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과, 세계화의 추세에서 국가 주권이 약화되어 비교사 연구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일국사의 관점에서 의학, 의료, 위생이 정치 및 사회에 끼친 영향 혹은 양자 간의 상호관계가 도출한 사회 변화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학, 의료, 위생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제도의 규정 및

8)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사학잡지』의 원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회 발표를 통해 접수된 초록은 훨씬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운용이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관심이 높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전개 양상은 근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 의학, 의료, 위생이 시대에 따라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는 데에 유효하다. 아울러 유사한 의료 체계나 전염병의 확산을 두고 지역별로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그 사회의 정치, 경제문제와 어떻게 결부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永島剛·市川智生·飯島渉, 2017). 단,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연구는 근대에 일본 제국의 영향력이 미쳤던 지역, 즉 역사적으로 일본과 정치적, 외교적인 연계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는 있으나, 동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의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본 의학사 관련 논문을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2010년도에 『의사학』에 수록된 「동아시아 의학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에는 일본 의학사 관련 연구는 극히 드물다고 서술하였다. 일본 해부학의 역사, 산과학 연구 등을 꼽으며, 3편의 논문을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신규환, 2010: 72-73).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전근대 연구로는 에도시대의 해부학의 발전을 다룬 논문(김성수, 2012), 유의의 분류와 평가를 논한 논문(김영수, 2019)이 발표되었다. 근대와 관련한 연구로는 근대 초기 의사의 형성에 관한 연구(김옥주·미야가와 타쿠야, 2011; 김영수 2013), 근대 일본의 위생 개념에 관한 연구(김영희, 2015; 2016; 서동주, 2019)가 발표되었고, 감염병 유행에 따른 방역체계의 형성(신규환, 2018a; 전경선, 2018)과 제국의 학 지식의 형성(신규환, 2018b), 묘지제도와 위생의 문제를 결부시킨 연구(호소연, 2018)가 있다. 근대 일본의 위생과 감염병, 위생행정에 관한 연구는 한국사의 그것과의 연관성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더 나아가 최근 신규환은 페스트 팬데믹을 계기로 서구열강과 동아시아 각국이 의학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의과학 지식을 구축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제국 일본의 그것을 그려냈다(신규환, 2020). 이 외에도 근

대의 의약담론의 형성과 그것이 질병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영수, 2019)와 일본의 근대 병원의 등장과 변천의 사회적 함의를 그려낸 연구(김영수, 2017) 등도 꼽을 수 있다. 지난 2010년의 동아시아 의학사의 연구 동향과 전망에서 일본 의학사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에도시대와 근대 초기를 중심으로 위생 제도의 확립과 의학지식의 구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생과 의료제도의 형성을 다루는 주제에서 병원과 약 등으로 관심 주제가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언급된 논문을 살펴보면, 최근 연구는 일본의 근대 의학사의 연구 동향과 맥을 같이 하고, 역사학계의 비교사적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의학사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계사적, 동아시아적 맥락에서의 비교사 연구나 식민지와 제국 일본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비교사 연구의 출발점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양국에서 비교사 연구가 진행된다면, 근대사회 시스템으로서의 공중위생과 근대 의료가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나가며

의학, 의료, 위생, 질병 등의 주제는 인간의 역사와 공존하고 있고, 시대에 따라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 학문이 추구하는 방법론의 변화, 주제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의학사의 연구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사학잡지』의 회고와 전망에 소개되고, 『일본의사학잡지』 등에 수록된 일본 의학사 논문을 분석하여 일본 의학사의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에 앞서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문분야를 지칭하는 용어를 둘러싼 논의를 소개하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국민국가론, 제국일본 연구와 관련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의료나 위생에 관한 제도사적 연구보다는 일단 제도적인 정립이 이루어진 이후의 근대 일본의 의학사 공백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일본 사회의 의료, 위생상황의 전개에 관한 연구와, 학제간 융합연구, 국가보다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히스토리에 근거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이후 신체에 주목하게 되면서 건강에 관한 주제도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방법론에서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답습하고 있는 관계로, 현 상황에서 새로운 연구 동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향후 10년 내에 현재 주목하고 있는 지역사, 세계사,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학사의 경향성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학사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공유 작업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근대사 연구자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 한 예로 이이지마의 경우에는 의학, 의료, 공중위생 등과 관련된 사료 및 자료를 새롭게 발굴하여, 자료의 수집뿐만 아니라 보존과 재배치를 담당하였다(飯島渉, 2015). 일본 의학사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작 단계부터 사료 수집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전근대 의학사 연구의 경우, 의가(醫家)에 보관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다. 반면, 근대 의학사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주로 정부 문서로 접근성은 좋으나, 이것만으로 사회사적인 측면을 읽어내기 쉽지는 않다. 이에 민간에서 생산된 의료와 질병에 관련된 문서를 활용하기도 하나, 문서가 다양한 장소에 산재해 있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의학계나 역사학계의 관심도가 적었던 탓에 발굴 및 정리,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최근에 근대 의학사 연구자를 중심으로 사료적 가치를 확인하여 흩어져 있는 문서군을 발굴·보존하고, 또 그 자신이 문서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학 관련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자료를 공개하는 작업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한 예로, 근대 일본

의 대표적인 의학사가인 후지카와 유가 기증한 문서가 현재 교토대학, 게이오대학 등의 복수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두 대학의 미디어센터는 ‘후지카와문고 디지털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기증된 문서를 온라인에서 아카이브화하여 자료를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서를 공개하는 데에 폐쇄적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를 중심으로 온라인 공개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의학사 관련 자료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자료의 발굴과 공유가 더욱 활발해져 가는 가운데, 일본 내의 의학사 연구는 의학의 역사에 관한 기존의 의학사 연구와 의학의 사회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담아내는 의학사 연구가 공존하며 점차 확장되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의학사, 의료사, 의사학, 의료사회사, 국민국가론,  
디지털아카이브화, 근대의학, 위생행정

투고일: 2020.05.31    심사일: 2020.06.22    게재확정일: 2020.08.05



## 참고문헌 REFERENCES

### <단행본>

- 신규환, 『페스트 제국의 탄생-제3차 페스트 팬데믹과 동아시아』(서울: 역사공간, 2020).
- 見市雅俊·脇村孝平·齋藤修編, 『疾病·開發·帝國醫療』(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1).
- 菅谷章, 『日本醫療制度史』(東京: 原書房, 1976).
- 廣川和花, 『近代日本のハンセン病問題と地域社會』(大阪: 大阪大學出版會, 2011).
- 吉良枝郎, 『幕末から廢藩置縣までの西洋醫學』(東京: 築地書館, 2005).
- 磯貝元編, 『明治の避病院』(京都: 思文閣出版, 1999).
- 內務省衛生局編, 『流行性感冒「スペイン風邪」大流行の記録』(東京: 東洋文庫, 2008).
- 內海孝, 『感染症の近代史』(東京: 山川出版社, 2016).
- 大日方純夫, 『日本近代國家の成立と警察』(東京: 校倉書房, 1992).
- 島菌進, 『<癒す知>の系譜』(東京: 吉川弘文館, 2003).
- 度會好一, 『明治の精神異說』(東京: 岩波書店, 2003).
- 藤野豊, 『日本ファシズムと醫療』(東京: 岩波書店, 1993).
- 藤野豊, 『日本ファシズムと優生思想』(京都: かもがわ出版, 1998).
- 藤野豊, 『強制された健康』(東京: 吉川弘文館, 2000).
- 林采成, 『鐵道員と身體-帝國の勞動衛生』(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9).
- 笠原英彦, 『日本の醫療行政』(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9).
- 笠原英彦·小島和貴, 『明治期醫療·衛生行政の研究』(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11).
- 寶月理恵, 『近代日本における衛生の展開と受容』(東京: 東信堂, 2010).
- 福田眞人, 『結核の文化史』(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1995).
- 杉本つとむ, 『江戸の阿蘭陀流醫師』(東京: 早稲田大學出版部, 2002).
- 小林丈廣, 『近代日本と公衆衛生-都市社會史の試み』(東京: 雄山閣出版, 2001).
- 小森陽一ほか編,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4 感性の近代』(東京: 岩波書店, 2002).
- 新村拓, 『古代醫療官人制の研究』(東京: 法政大學出版局, 2005).
- 永島剛·市川智生·飯島涉編, 『衛生と近代-ペスト流行に見る東アジアの統治·醫療·社會』(東京: 法政大學出版局, 2017).
- 羽生和子, 『江戸時代, 漢方藥の歴史』(大阪: 清文堂出版, 2010).
- 猪飼周平, 『病院の世紀の理論』(東京: 有斐閣, 2010).
- 酒井シヅ, 『日本の醫療史』(東京: 東京書籍, 1982).
- 中靜未知, 『醫療保險の行政と政治』(東京: 吉川弘文館, 1998).
- 池田仁子, 『近世金澤の醫療と醫家』(東京: 岩田書院, 2015).

川上武, 『現代日本醫療史』(東京: 勁草書房, 1965).

川喜田愛郎, 『近代醫學の史的基盤(上・下)』(東京: 岩波書店, 1977).

青柳精一, 『近代醫療のあけぼの-幕末・明治の醫事制度』(京都: 思文閣出版, 2011).

青木歲幸, 『在村蘭學の研究』(京都: 思文閣出版, 1998).

青木歲幸・大島明秀・W. ミヒエル編, 『天然痘との闘い-九州の種痘』(東京: 岩田書院, 2018).

青木純一, 『結核の社會史』(東京: 御茶の水書房, 2004).

秋葉保次編, 『醫藥分業の歴史』(東京: 藥事日報社, 2012).

布施昌一, 『醫師の歴史-その日本の特長』(東京: 中央公論社, 1979).

海原亮, 『江戸時代の醫師修業』(東京: 吉川弘文館, 2014).

Frank Huisman and John Harley Warner eds., *Locating Medical History: The Stories and Their Meaning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4).

<연구논문>

김성수, 「에도시대 해부학의 발전: 『장지(藏志)』의 간행을 중심으로」, 『의사학』 21-1 (2012).

김영수, 「근대 일본의 의사면허의 변천: 의제부터 의사법까지」, 『연세의사학』 16-1 (2013).

김영수, 「근대 일본의 ‘병원’: 용어의 도입과 개념형성을 중심으로」, 『의사학』 26-1 (2017).

김영수, 「메이지기 근대적 의약담론의 성립과 ‘뇌병(腦病)’의 치료」, 『이화사학연구』 58 (2019).

김영수, 「에도시대 유의의 분류와 평가」, 『의료사회사연구』 3 (2019).

김영수, 「일본의 도시위생사 연구 동향과 전망」,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3 (2020).

김영희, 「근대일본의 공중위생관념 형성과정」, 『일본학보』 102 (2015).

김영희, 「근대전환기 일본 국민의 ‘위생’ 인식-메이지건백서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07 (2016).

김옥주·미야가와 타쿠야, 「에도말 메이지초 일본 서양의사의 형성에 대하여」, 『의사학』 (2011).

박윤재, 「한국 근대 의학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의사학』 19-1 (2010).

서동주, 「노동을 위한 <의학>·국가를 위한 <위생>-근대일본의 위생학자 데루오카 기토의 과학적 위생론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36 (2019).

신규환, 「동아시아 의학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의사학』 19-1 (2010).

신규환, 「1870-80년대 일본의 콜레라 유행과 근대적 방역체계의 형성」, 『사립』 64 (2018a).

신규환, 「1890년대 대만과 일본의 페스트 유행과 제국의학 지식의 형성」, 『일본역사연구』

48 (2018b).

이종찬, 「메이지 일본에서 근대적 위생의 형성 과정」, 『의사학』 12-1 (2003).

임채성, 「철도원과 신체 전전기 일본국철 노동위생의 실태와 정책」, 『아세아연구』 55-3 (2012).

전경선, 「1933년 만주국 페스트의 유행과 방역활동」, 『중국사연구』 117 (2018).

호소연, 「메이지 시기 묘지 제도와 위생: 장법과 묘지를 둘러싼 담론을 통하여」, 『일본역사연구』 48 (2018).

홍수경, 「일상의 과학화, 식생활의 합리화: 1910-20년대 일본 근대 영양학의 탄생」, 『의사학』 27-3 (2018).

『史學雜誌』 105-128 (1996-2019).

『日本醫史學雜誌』 41-65 (1995-2019).

加藤千香子, 「國民國家論と戦後歴史學: 「私論」の可能性」, 『立明館言語文化研究』 27-1 (2015).

岡田靖雄, 「憑きもの現象論-その構造分析(上)」, 『日本醫史學雜誌』 44-1 (1998).

岡田靖雄, 「憑きもの現象論-その構造分析(下)」, 『日本醫史學雜誌』 44-3 (1998).

高岡裕之, 「醫療問題の社會的成立-第一次世界大戰後の醫療と社會」, 『歴史科學』 131 (1993).

高岡裕之, 「近代日本の地域醫療と公立病院」, 『歴史評論』 726 (2010).

高橋みや子, 「山形縣における近代産婆制度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明治32年までの産婆規則類の制定を中心に」, 『日本醫史學雜誌』 47-4 (2001).

高橋克伸, 「華岡流外科を學んだ門人たちの手術記録について」, 『和歌山市立博物館研究紀要』 27 (2013).

古泉弘, 「考古學からみた江戸の便所と尿管處理」, 『歴史評論』 590 (1999).

工藤翔二・鄒大同, 「ホブソンの『内科新説』-幕末のイギリス醫學にみる呼吸器疾患 (1) 『内科新説』はどのような書物か」, 『呼吸臨床』 1-2 (2017).

工藤翔二・鄒大同, 「ホブソンの『内科新説』-幕末のイギリス醫學にみる呼吸器疾患 (2) 『内科新説』にみる喘病(喘息)の治療」, 『呼吸臨床』 2-1 (2018).

館野正美, 「吉益東洞の天命說について」, 『日本醫史學雜誌』 43-4 (1997).

館野正美, 「吉益東洞の醫術と藥劑觀」, 『生活文化史』 58 (2010).

菅原京子, 「國家資格」としての保健婦の終焉 (1)」, 『現代社會文化研究』 22 (2001).

菅原京子, 「國家資格」としての保健婦の終焉 (2)」, 『現代社會文化研究』 24 (2002).

廣川和花, 「史料が語るハンセン病史・岡山縣と邑久町の試み」, 『部落問題研究』 183 (2008).

廣川和花, 「近代大阪のベスト流行にみる衛生行政の展開と醫療・衛生環境」, 『歴史評論』

726 (2010).

廣川和花, 「近代日本の疾病史資料の保存と公開にむけて: ハンセン病史資料を素材に」, 『精神醫學史研究』16-1 (2012).

龜出一邦, 「松本壽庵の醫事」, 『山口縣地方史研究』92 (2004).

宮崎千穂, 「ロシア艦隊醫が描いた幕末長崎の醫學的風景」, 『歴史學研究』882 (2011).

鬼嶋淳, 「戦時期の保健醫療問題と地域社會」, 『史觀』152 (2005).

今谷明, 「歐米に於ける日本史研究の現状と動向」, 『日本研究』35 (2007).

今井勝人, 「第二次世界大戦前の醫師の供給」, 『武藏大學論集』55-2 (2008).

磯田道史, 「19世紀の武士社會と醫學・齒科醫學をめぐって」, 『日本醫史學雜誌』59-2 (2013).

吉良枝郎, 「明治維新の際, 日本の醫療體制に何かおこったか - 西洋醫學選擇の道のり」, 『日本東洋醫學雜誌』57-6 (2006).

吉川美佐, 「明治初期段階における近代醫療體制の構築過程」, 『京都女子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研究紀要 史學編』7 (2008).

内田正夫, 「隔離と消毒-明治のコレラ対策における豫防と治療」, 原田勝正編著, 『「國民」形成における統合と隔離』(東京: 日本經濟新聞社, 2002).

唐澤信安, 「濟生學舍廢校後の各種講習會及び私立東京醫學校・私立日本醫學校」, 『日本醫史學雜誌』41-1 (1995).

大星光史, 「日本文學にみる醫療思潮の歴史的變遷-疾病觀の多重構造」, 『日本醫史學雜誌』45-1 (1999).

大日方純夫, 「日本「國民國家」と衛生システムの成立」, 『人文學報』287 (1998).

大和孝明, 「創設期東京養育院をめぐる救済と差別の位相」, 『人民の歴史學』170 (2006).

渡辺忠司, 「近世中後期大坂における水道改修普請」, 『大阪の歴史』45 (1995).

渡邊則雄, 「赤痢・ペスト・コレラ」, 『岡崎市史研究』20 (1999).

藤本大士, 「近世醫療史研究の現在: 民衆・公權力と醫療」, 『洋學: 洋學史學會研究年報』21 (2013).

藤野豊, 「優生思想と民衆」, 『民衆史研究』49 (1995a).

藤野豊, 「近代日本のキリスト教と優生思想」, 『キリスト教史學』49 (1995b).

藤野豊, 「隔絶のなかのハンセン病患者」, 藤野豊他編, 『歴史なかの「癩者」』(東京: ゆみる出版, 1996).

藤野豊, 「民族衛生政策の成立-厚生省設置への道」, 内務省史研究會, 『内務省と國民』(東京: 文獻出版, 1998).

藤原壯介, 「醫療生協前史(戦前)をめぐるいくつかの問題」, 『立命館産業社會論集』32-1

(1996).

- 鈴木則子, 「初代曲直瀬道三の癩醫學」, 『日本醫史學雜誌』 41-3 (1995).
- 鈴木則子, 「江戸時代の麻疹と醫療」, 『日本醫史學雜誌』 50-4 (2004).
- 鈴木雅子, 「1960年代の重度身體障害者運動」, 『歴史學研究』 889 (2012).
- 鈴木晃仁, 「近代日本におけるジフテリア疾病統計の分析」, 『三田學會雜誌』 97-4 (2005).
- 鈴木晃仁, 「醫學史の過去・現在・未來」, 『科學史研究』 269 (2014).
- 鹿毛敏夫, 「近世後期における地域醫家の存在形態」, 『地方史研究』 306 (2003).
- 鹿野政直, 「健康觀にみる近代」, 『鹿野政直思想史論集』 5 (東京: 岩波書店, 2008).
- 柳川鍊平, 「日獨戰役における海軍病院船「八幡丸」の醫療活動」, 『日本醫史學雜誌』 63-4 (2017).
- 林敬, 「宇和島藩醫ストライキの事」, 『日本醫史學雜誌』 41-4 (1995).
- 笠原英彦, 「明治10年代における衛生行政」, 『法學研究: 法律・政治・社會』 70-8 (1997).
- 笠原英彦, 「近代日本における衛生行政の變容」, 『法學研究: 法律・政治・社會』 73-4 (2000).
- 馬場義弘, 「近代的醫師制度の成立と一般開業醫の動向について」, 『歴史科學』 131 (1993).
- 末永恵子, 「新聞にみる福島の醫療」(福島: アカデミア・コンソーシアムふくしま, 2012).
- 牧野正直, 「ハンセン病の歴史に學ぶ: ハンセン病療養所醫療100年をふりかえる」, 『日本ハンセン病學會雜誌』 79-1 (2010).
- 木村哲也, 「高知縣における保健婦駐在制」, 『歴史民俗資料學研究』 4 (1999).
- 梶谷光弘, 「在村醫の蘭學修業とその影響について」, 『山陰史談』 30 (2002).
- 尾崎耕司, 「1879年コレラと地方衛生政策の轉換」, 『日本史研究』 418 (1997).
- 尾崎耕司, 「後藤新平・衛生國家思想の國際的契機」, 『史潮』 44 (1998).
- 尾崎耕司, 「萬國衛生會議と近代日本」, 『日本史研究』 439 (1999).
- 飯島涉, 「「醫療私會史」という視角-20世紀東アジア・中國を中心に」, 『歴史評論』 787 (2015).
- 福嶋正和・藤田慧子, 「大正女醫の動向」, 『日本醫史學雜誌』 62-4 (2016).
- 福井敏隆, 「幕末期弘前藩における種痘の受容と醫學館の創立」,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6 (2004).
- 逢見憲一, 「醫學史・醫療史と公衆衛生: マキューン・テーゼから歴史人口學へ(日本醫史學會平成29年11月例會シンポジウムわたしはなぜ醫學史・醫療史をまなぶのか)」, 『日本醫史學會誌』 64-4 (2018).
- 山本志保, 「明治前期におけるコレラ流行と衛生行政-福井縣を中心として」, 『法政史學』 56 (2001).
- 山本拓司, 「國民化と學校身體検査」,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488 (1999).

- 山下大厚, 「國民化とラジオ體操」, 『法政大大學院紀要』44 (2000).
- 山下麻衣, 「明治期以降における看護婦資格制度の變遷」, 『大阪大學經濟學』50-4 (2001a).
- 山下麻衣, 「戦後醫療技術革新下における看護業務の變遷過程」, 『大阪大學經濟學』51-3 (2001b).
- 三崎裕子, 「近代的明治女醫誕生の経緯と背景」, 『日本醫史學雜誌』61-2 (2015).
- 森山治, 「美濃郡都政下における道立病院政策と白木構想の影響」, 『人文論究』75 (2006).
- 杉山章子, 「農村醫學の形成と發展」, 『日本醫史學雜誌』46-4 (2000).
- 杉山弘, 「コレラ騒動論-その構造と論理」, 『日本の時代史』22 (東京: 吉川弘文館, 2004).
- 杉浦雄・篠原孝市, 「近世鍼灸史における「阿是要穴」の意義」, 『日本醫史學雜誌』49-1 (2003).
- 上野周子, 「紀州藩の醫療政策と地域社會」, 『三重大史學』7 (2007).
- 生瀬克己, 「日中戦争期の障害者観と傷痍軍人の處遇を巡って」, 『桃山學院大學人間科學』24 (2003).
- 西岡千文, 「IIFを利用した富士川文庫資料の再統合の試み」, 情報處理學會人文科學とコンピュータシンポジウム, 『じんもんこん2018論文集』(2018).
- 西岡千文, 「京都大學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の紹介」, 『傳統鍼灸』45-1 (2018).
- 西山佐代子, 「日本の保育政策」, 『北海學園大學經濟論集』49-2 (2001).
- 西川長夫, 「フランス型國民國家の特色」, 歴史學研究會編, 『國民國家を問う』(東京: 青木書店, 1994).
- 石居人也, 「明治初年の〈衛生〉言説」, 『歴史學研究』828 (2007).
- 石原力, 「中津藩醫山邊文伯と産育編について」, 『日本醫史學雜誌』49-1 (2003).
- 石川浩士, 「大阪府が1933年に實施した麻薬中毒患者の收容事業」, 『日本學報』27 (2008).
- 星野高德, 「戦前期東京市・大阪市・名古屋市の人口・財政・衛生環境」, 『琉球大學經濟研究』99 (2020).
- 成田龍一, 「身體と公衆衛生-日本の文明化と國民化」, 歴史學研究會編, 『講座 世界史4 資本主義は人をどう變えてきたか』(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
- 成田龍一, 「書評 小林丈廣著『近代日本と公衆衛生-都市社會史の試み』」(東京: 雄山閣出版, 2001年), 『部落解放研究』141 (2001).
- 細野健太郎, 「近世後期の地域醫療と蘭學」, 『埼玉地方史』43 (2000).
- 細野健太郎, 「幕末明治初期の埼玉縣域における種痘の様」,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16 (2004).
- 細野健太郎, 「18世紀における村社會と醫療」, 『關東近世史研究』62 (2007).
- 小島和貴, 「我が國近代醫療行政の形成」, 『慶應義塾大學大学院法學研究科論文集』36

(1995).

- 小島和貴, 「日本衛生政策の形成をめぐる行政過程」, 『法學政治學論究』 41 (1999).
- 小林茂, 「近世の南西諸島における天然痘の流行パターンと人痘法の施行」, 『歴史地理學』 197 (2000).
- 小林丈廣, 「近代的精神醫療の形成と展開」, 『世界人權問題研究センター-研究紀要』 3 (1998).
- 小川亞彌子, 「長州藩における牛痘種痘法の導入と普及」,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6 (2004).
- 小川亞彌子, 「幕末期長州藩における醫學館の創設とその機能」, 『洋學』 21 (2014).
- 速水健兒, 「近世佐渡における書籍を巡るネットワークと醫師・海運業者」, 『國史談話會雜誌』 47 (2006).
- 松岡弘之, 「救護法施行前後の都市醫療社會事業」, 『歴史評論』 726 (2010).
- 松木明知, 「華岡青洲の癩醉法の普及について」, 『日本醫史學雜誌』 42-3 (1996).
- 松木明知, 「幕末の弘前藩における疱瘡流行と牛痘普及の實態」, 『日本醫史學雜誌』 43-1 (1997).
- 松木明知, 「本邦牛痘種痘法の鼻祖中川五郎次研究の歩み(上)」, 『日本醫史學雜誌』 53-2 (2007).
- 松本武祝, 「植民地期朝鮮農村における衛生・醫療事業の展開」, 『商經論叢』 34-4 (1999).
- 松永巖, 「長崎におけるコレラの流行と「救濟」-世紀末におけるその展開」, 原田勝正編著, 『「國民」形成における統合と隔離』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2002).
- 松田ヒロ子, 「近代沖繩の醫療と臺灣: 沖繩縣出身者の植民地醫學學校への進學」, 『移民研究』 9 (2013).
- 松村寛之, 『「國防國家」の優生學』, 『史林』 83-2 (2000).
- 松塚俊三, 「國民國家論と世界史」, 『立明館言語文化研究』 27-1 (2015).
- 勝野有美, 「近代日本における身體障害像の變遷」, 『三田學會雜誌』 97-4 (2005).
- 市川智生, 「近代日本の開港場における傳染病流行と外國人居留地」, 『史學雜誌』 117-6 (2008).
- 深瀬泰旦, 「海軍大醫監 奥山虎炳(1840-1926)」, 『日本醫史學雜誌』 41-3 (1995).
- 深瀬泰旦, 「ロブリー・ダングリソンの『醫學事典』-明治初期のわが國英米醫學への貢獻」, 『日本醫史學雜誌』 43-4 (1997).
- 深瀬泰旦, 「緒方洪庵と添田玄春」, 『日本醫史學雜誌』 49-1 (2003a).
- 深瀬泰旦, 「西洋醫學所醫師添田玄春の長崎留學」, 『洋學』 11 (2003b).
- 深瀬泰旦, 「江戸幕府寄合醫師 添田玄春の醫學と醫療」, 『日本醫史學雜誌』 60-3 (2014).
- 阿部安成, 「文明開化とフォークロア」, 宇野俊一編, 『近代日本の政治と地域社會』 (東京: 國書刊行會, 1996a).

- 阿部安成,「健康,衛生,あるいは病という歴史認識」,『一橋論叢』116-2 (1996b).
- 阿部安成,「養生から衛生へ」,小森陽一ほか編,『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4 感性の近代』(東京:岩波書店,2002).
- 岸野俊彦,「近世醫療都市名古屋と尾張藩社會」,岸野俊彦著,『尾張藩社會の文化・情報・學問』(2001).
- 安田健次郎,「西洋醫學の傳來とドイツ醫學の選擇」,『慶應醫學』84-2 (2007).
- 岩淵令治,「近世都市のトイレと尿尿処理の限界」,『歴史と地理』484 (1995).
- 岩淵佑里子,「寛政~天保期の養生所政策と幕府醫學館」,『論集きんせい』22 (2000).
- 岩下哲典,「尾張藩『御醫師』の基礎的研究(上)」,『徳川林政史研究所研究紀要』34 (2000).
- 岩下哲典,「尾張藩『御醫師』の基礎的研究(下)」,『徳川林政史研究所研究紀要』36 (2002).
- 永島剛,「感染症統計にみる都市の生活環境」,『三田學會雜誌』97-4 (2005).
- 奥澤康正・廣瀬秀,「江戸期の義眼史」,『日本醫史學雜誌』49-1 (2003).
- 熊野弘子,「江戸前期における中國醫書の受容と醫師像」,『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3 (2010).
- 遠藤次郎・中村輝子,「名古屋玄醫の醫學體」,『科學史研究』229 (2004).
- 遠城明雄,「傳染病・都市社會・衛生組合~明治期の仙台を事例として」,『史淵』152 (2015).
- 月澤美代子,「明治初頭日本における醫療技術の移入・受容過程」,『日本醫史學雜誌』55-3 (2009).
- 月澤美代子,「1850-70年代における醫療情報の傳達・普及」,『日本醫史學雜誌』57-4 (2011).
- 月澤美代子,「明治初期日本における西洋解剖學的人體像の民衆への普及」,『日本醫史學雜誌』59-4 (2013).
- 月澤美代子,「複合領域としての醫療史/醫學史/科學史」,『日本醫史學雜誌』64-4 (2018).
- 二谷智子,「1879年コレラ流行時の有力船主による防疫活動」,『社會經濟史學』75-3 (2009).
- 日下部修,「近代日本における精神科作業療法の歴史的考察」,『日本醫史學雜誌』59-3 (2013).
- 長谷川一夫,「越後・柏崎町の醫學館について」,青木美智男・阿部恒久編,『幕末維新と民衆社會』(東京:高志書院,1998).
- 張基善,「仙台藩における諸醫師とその把握・動員」,『歴史』109 (2007a).
- 張基善,「幕醫・藩醫の社會的地位に関する基礎的考察」,『國史談話會雜誌』48 (2007b).
- 長野浩典,「大分縣における明治12年のコレラ流行と民衆」,『大分縣地方史』85 (1997).
- 長田直子,「幕末期在村における醫師養成の實態」,『論集きんせい』24 (2002).
- 長田直子,「近世後期における患者の醫師選擇」,『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16 (2004).
- 長田直子,「江戸近郊農村における醫療」,『關東近世史研究』62 (2007).



- 猪飼周平, 「近代日本醫療史における開業醫の意義-病院の世紀の論理による醫療史再構成に向けて」, 佐口和郎・中川清編著, 『講座 社會福祉2 福祉社會の歴史-傳統と變容』(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05).
- 荻野美穂, 「家族計劃への道」, 『思想』925 (2001).
- 荻野夏木, 「俗信と「文明開化」」,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74 (2012).
- 田嶋哲郎, 「錦小路家門人の一形態」, 『愛大史學』10 (2001).
- 田中省三, 「戦時期における静岡縣の國民健康保險について」, 『静岡縣近代史研究』(1996).
- 田中誠二・杉田聰・森山敬子・丸井英二, 「占領期における急性感染症の發生推移」, 『日本醫史學雜誌』53-2 (2007).
- 田中誠二・杉田聰・安藤敬子・丸井英二, 「風土病マラリアはいかに撲滅されたか」, 『日本醫史學雜誌』55-1 (2009).
- 田中幸子, 「占領期における保健婦助産婦看護婦法の立法過程」, 『神奈川法學』34-2 (2001).
- 前川哲朗, 「痘瘡・コレラの流行と對策」, 『市史かなざわ』6 (2000).
- 前川哲朗, 「藩政期村方における疾病と醫療活動」, 『市史かなざわ』10 (2004).
- 井本眞理, 「醫療史の可能性-醫學史, 衛生史からの飛躍」, 『文化共生學研究』10 (2011).
- 町泉壽郎, 「江戸醫學館における臨床教育」, 『日本醫史學雜誌』59-1 (2013).
- 佐藤文字, 「近世都市生活における痘瘡神まつり」, 『史窓』57 (2000).
- 酒井シヅ, 「日本の醫療史, 特に入院施設の歴史」, *The Journal of the Japan Medical Association*, 139-11 (2011).
- 酒井耕造, 「會津藩における種痘の普及と民俗」,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16 (2004).
- 竹原萬雄, 「明治10年代におけるコレラ豫防と地域社會」, 『日本歴史』681 (2005).
- 竹原萬雄, 「明治初期の衛生政策構想」, 『日本醫史學雜誌』55-4 (2009).
- 竹下喜久男, 「摂津北部一豪農の醫療への關わり」, 大阪大學文學部日本史研究室編, 『近世近代の地域と權力』(大阪: 清文堂出版, 1998).
- 竹下喜久男, 「熊本藩における華岡流醫師の動向」, 『鷹陵史學』25 (1999).
- 中馬愛, 「保健衛生調査會發足への道」, 『歴史學研究』788 (2004).
- 中靜未知, 「醫療の大衆化と診療報酬」, 青木保他編, 『愛と苦難』(東京: 岩波書店, 1999).
- 中村一成, 「日本醫療團と「公的醫療機關」-醫療供給體制の戦時と戦後」, 『年報・日本現代史』11 (2006).
- 中澤恵子, 「「保健國策」の下で進められた國民健康保險制度のはじまり」, 『千葉縣史研究』16 (2008).
- 中澤恵子, 「明治期の農山漁村における衛生組合の設置目的と役割」, 『千葉縣史研究』17 (2009).

- 池田仁子, 「加賀藩前期の醫者と金澤城内での醫療」, 『金澤城研究』9 (2011).
- 池田仁子, 「金澤城」, 『金澤城研究』11 (2013).
- 妻鹿淳子, 「病者收容施設としての牢屋敷」, 『岡山縣立記録資料館紀要』5 (2010).
- 川鍋定男, 「江戸時代, 甲州における醫者と醫療意識」, 『山梨縣史研究』7 (1999).
- 淺井允晶, 「適塾と除痘館」, 有坂隆道・淺井允晶編, 『論集日本の洋學』IV (大阪: 清文堂出版, 1997).
- 淺井允晶, 「種痘舎の成立と明石天民」, 網干善教先生古稀記念會, 『網干善教先生古稀記念考古學論集』(1998).
- 青木歲幸, 「種痘法普及にみる在來知」, 『佐賀大學地域學歴史文化研究センター研究紀要』7 (2013).
- 青木純一, 「日本結核豫防協會と撲滅運動」, 『社會科學年報』34 (2000).
- 清水英一, 「安中藩主板倉侯の種痘事業」, 『日本醫史學雜誌』49-1 (2003).
- 惣田充, 「神奈川縣立芹香院の開設に関する一考察」, 『京濱歴科研年報』20 (2008).
- 駄場裕司, 「第六代學長・下村宏らのハンセン病關連事業」, 『拓殖大學百年史研究』1-2 (1999).
- 澤登寬聰, 「細野健太郎・長田直子兩氏の報告に奇せて」, 『關東近世史研究』62 (2007).
- 澤井直・坂井建雄, 「昭和初期解剖學用語の改良と國語運動」, 『日本醫史學雜誌』56-1 (2010).
- 樋野恵子, 「明治初期における醫療の一分野としての看護」, 『日本醫史學雜誌』54-5 (2008).
- 坂口誠, 「近代大阪のペスト流行」, 『三田學會雜誌』97-4 (2005).
- 板原和子・桑原治雄, 「江戸時代後期における精神障害者の處遇(1)」, 『社會問題研究』48-1 (1998).
- 板原和子・桑原治雄, 「江戸時代後期における精神障害者の處遇(2)」, 『社會問題研究』49-1 (1999a).
- 板原和子・桑原治雄, 「江戸時代後期における精神障害者の處遇(3)」, 『社會問題研究』49-2 (1999b).
- 板原和子・桑原治雄, 「江戸時代後期における精神障害者の處遇(4)」, 『社會問題研究』50-1 (2000).
- 坂井めぐみ, 「戦時期日本における脊髄戦像/脊髄損傷の醫療史: 整形外科と軍陣醫療の接點」, 『日本醫史學會誌』64-1 (2018).
- 平尾眞智子, 「大正4(1915)年制定の「看護婦規則」の制定過程と意義に関する研究」, 『日本醫史學雜誌』47-4 (2001).
- 平野恵, 「植木屋柏木吉三郎の本草學における業績」, 『MUSEUM』577 (2002).

- 海原亮, 「近世後期在村における病と醫療」, 『史學雜誌』 190-7 (2000).
- 海原亮, 「彦根藩醫學寮の設立と藩醫中」, 『論集きんせい』 23 (2001).
- 海原亮, 「知識・技術の所有と身分」, 『部落問題研究』 76 (2006).
- 海原亮, 「都市大阪の醫療文化と町觸規則」, 塚田孝編, 『近世大阪の法と社會』 (大阪: 清文堂出版, 2007).
- 海原亮, 「醫療知識の移動と普及」, 『ヒストリア』 213 (2009).
- 海原亮, 「醫療環境の近代化過程」, 『歴史評論』 726 (2010).
- 海原亮, 「江戸の眼病療治」,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係研究科・文學部日本史學研究室編, 『近世社會史論叢』 (東京: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係研究科・文學部日本史學研究室, 2013).
- 和久田哲司, 「近代日本におけるマッサージ醫療の導入」, 『日本醫史學雜誌』 49-2 (2003).
- 荒川章二, 「規律化される身體」, 小森陽一ほか編,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4 感性の近代』 (東京: 岩波書店, 2002).
- 後藤基行, 「戦前期日本における私立精神病院の發展と公費監置」, 『社會經濟史學』 78-3 (2012).
- 黒野伸子・大友達也, 「奈良時代における疾病觀, 醫療觀の重層性」, 『岡崎女子大學紀要論文』 52 (2019).
- ヴォルフガング・ミヒェル, 「日本におけるカスパル・シャムベルゲルの活動について」, 『日本醫史學雜誌』 41-1 (1995).
- ヴォルフガング・ミヒェル, 「初期紅毛流外科と儒醫向井元升について」, 『日本醫史學雜誌』 56-3 (2010).
- Tatsuo Sakai, "Historical Development of Modern Anatomy Education in Japan", 『日本醫史學雜誌』 56-1 (2010).

Abstract

# Trends and Prospects of Studies of Medical History in Japan: the Diversification of Study Areas and Methodologies

KIM Youngsoo\*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and prospects of medical history in Japan. The study of medical history in Japan has developed in various periods and themes. In particular, many studies period have actively made full use of old documents and materials that have been well-preserved. This paper introduces the research trends of medical history in Japan, while discussing the issues surrounding the concept and designation of medical history in present day Japan. This can be seen as an inevitable phenomenon that emerged as methods of medical history research have become diversified, and there are many suggestions related to the future direction of this study.

Based on this, this paper points out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history research conducted in each period since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

\* Basic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Medical History,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 E-mail: yonsu7766@yuhs.ac

Received: May, 31, 2020; Reviewed: Jun, 22, 2020; Accepted: Aug, 05, 2020

century. In particular, this investigation confirmed that the subjects and research methods of medical history became diversifi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nation state theory. Furthermore,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major topics of medical history research are analysis of medical books, doctors and medical personnel,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medicine,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the medical system, the social impac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discipline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body. In addition,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compare how the regulations and operations of medicine and medical and hygiene systems are being developed in the context of “East Asia.”

**Keywords:** medical history, history of medicine, social history of medicine, nation state theory, digital archives, modern medicine, public health administration